2008 아름다운 실천, 그 이후 〈1〉 해남 '땅끝 공부방' 아이들

"더 어려운 이웃 돕자" 저금통 모금

최악의 불황으로 온 국민이 힘들었던 2008년이 저물고 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해 벽두 서해안을 뒤덮었던 타르 덩어리 제거에 나선 자원봉사자들,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를 이어가는 작은 정성들,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감싸주는 손길 속에서 희망은 죽지 않고 이어져갔다. 올 한해 광주일보 지면에 비친 아름다운 실천과 그 주인공들의 이후 얘기를 연재한다.

'기부천사' 문근영씨의 도움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해남 땅끝공부방' 아이들이 또 다른 나눔을 위해 버스요금과 간식비 등을 아껴 모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문근영 언니처럼 기부천사 될래요"

6㎞ 걸어 버스비 아끼고 용돈 모아

작은 정성 쌓여 '나눔 바이러스' 확산

"문근영 언니(누나)처럼 '기부천사' 될래요."

지난 17일 오후 해남 땅끝마을에 위치한 '땅끝공부방'에선 해맑은 청소년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땅끝공부방은 '기부천사'로 불리우는 탤런트 문근영씨가 공부방 매각으로 40여명의 초·중·고생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는 광주일보의 보도(2006년 10월19일자)를 접한 뒤 3억원을 들여 새롭게 마련해 준 보금자리다.

문씨는 공부방 완공 이후 피자를 들고 이곳을 찾아와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문씨가 마련해 준 공부방은 현재 땅끝마을 초·중·고교생 40여명의 공부 보금자리로 이용되고 있다. 문씨가 땅끝마을에 베푼 기부는 아이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생각도 바꿔놨다. 땅끝공부방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기부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씨가 시작한 선행이 '나눔 바이러스'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근 문방구의 한 60대 노부부는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일주일에 한 끼니씩을 거른 뒤 식비를 모아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웃을 돕는데 쓰고있다. 땅끝 공부방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송지중학교도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나눔 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나눔 바이러스는 땅끝 공부방 아이들에게도 급속히 전염됐다. 아이들은 지난해부터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돼지저금통 모금을 시작했다.

중·고교생들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학교에서 공부방까지 6㎞ 거리를 걸어다니며 버스요금을 모았다. 초등학생들도 간식비와 용돈을 아껴 동전 몇개씩을 저금통에 넣었다. 이렇게 모인 돈이 지난해에만 17만9천550원이었다.

올해도 돼지저금통은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득 차갔다. 올 연말까지 목표액인 30만원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계획이다.

용천우(16·송지중 3년)군은 "(문)근영 누나에게서 받은 나눔의 씨앗이 저는 물론 공부방 친구들의 가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며 "어른이 되면 생활이 어렵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며 활짝 웃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땅끝공부방 아이들이 요즘 뿔이 나있다. 문근영씨의 기부를 비난한 악플러들 때문이다.

최연지(16·송지중 3년)양은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돕는 근영 언니를 왜 험담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땅끝공부방 김혜원 원장은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사정도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문근영씨의 선행 이후 남을 돕자는 말을 자주한다"며 "한 사람의 따뜻한 기부가 삭막한 세상에 나눔이란 씨앗을 심어놨다"고 말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철부선 실린 승용차 바다 추락 3명 실종

완도 노화도서

철부선에 실린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오후 4시40분께 완도군 노화도 산양진항 인근 해상에서 차량과 승객을 함께 태우는 철부선에 있던 백모(61)씨의 아반테 승용차가 바닷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백씨 등 3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 함께 타고 있던 백씨의 부인 이모(55)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 나와 해안가까지 헤엄쳐 나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완도군 노화도 주민인 백씨 등은 이날 해남군에서 일을 보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경비정 5척 등을 동원해 사고 해안에서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해남군 송지면 땅끝에서 완도군 노화도 산양진항까지 운행하는 철부선이 항구로부터 100m 가량 떨어져 접안을 준비하던 중 백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승용차 식당 돌진

순천서 2명 사망

지난 20일 오전 7시40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김모(20)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된 크레도스 승용차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로변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쏘나타에 타고 있던 김모(여·20)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김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개업 준비 망이던 이 식당에는 사고 당시 사람이 없어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김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개인 사용 목적 바이오 디젤 제조 위법"

광주지법 항소심

석유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디젤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 디젤 생산설비 제작 업체 A사와 이 회사 제품으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 사용한 장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만이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만들었더라도 제조 시설을 갖췄다면 이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7월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사와 장씨에 대해 "제조 행위가 단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변 소음 고려않고 내린 조업정지 부당"

공장 주변의 배경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주)삼양사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공장조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포시는 최근 2년간 4차례에 걸쳐 측정한 소음 수치를 근거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감정촉탁 결과 이들 수치는 공장 주변의 '암소음'(배경소음)이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암소음을 참작한 보정 수치는 기준치인 50dB(데시벨)에 못 미친 것으로 나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목포시가 측정한 소음 수치가 암소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치보다 2~6dB가량 높은 수치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7684〉 김종두

다 층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생후 4개월 아이 버린 '철없는 엄마'

쌍나팔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모텔 객실에 버린 철없는 20대 엄마가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동구 금동 A모텔 객실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버려두고 나온 김모(24)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에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전전해 오다 이마저도 힘들어지자 아들을 모텔에 버린채 달아났다가 모텔에 버린 편의점 포장지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추가 절도 혐의를 확인한 뒤 수배관서로 신병을 인계했다"며 "아들은 김씨의 처벌이 끝날 때까지는 영아보호소에서 맡아서 기르게 된다"고 설명.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